

이즈미야마 자석장

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즈미야마 자석장은 17세기 초 수십 년 사이에 조선인 도공 가나가에 산베에(통칭:이삼평)(~1655년)가 발견했다고 합니다. 산베에가 발견한 것은 도석(자석이라고도 함)이라는 것으로 이 도석에는 자기에 꼭 필요한 원료인 석영과 견운모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즈미야마에서 채굴되는 도석의 성분은 석영, 견운모, 카올리나이트, 장석과 소량의 산화철이며, 산화철로 인해 돌의 표면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. 이즈미야마의 발견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자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자석장으로 이용되기 이전 이즈미야마의 원래 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, 산은 현재의 형태가 될 때까지 서서히 깎여 나갔습니다.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은 수작업으로 채굴되었으며, 일본의 개국과 1868년 메이지 유신 후에야 비로소 기계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1897년에는 약 10,024톤의 도석이 이즈미야마 자석장에서 채굴되었습니다. 이즈미야마에 현재도 남아 있는 2개의 채굴갱 내부에서는 채굴 장비가 남긴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.

이즈미야마는 1980년에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, 1995년경까지 채석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. 1800년대 후반까지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공방들은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에서 고품질의 도석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 아리타 도자기의 대부분에는 이 아마쿠사의 도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